



황벽선사가 입적 때까지 교화를 편 행화도량 황벽산 황벽사. 지금 대웅전을 복원 중이다.

# 추위가 뼈에 사무치지 않았다면 매화향기를 어찌 얻을 수 있으랴

## 황벽사1

안개가 완강하게 자욱하다. 미니 버스가 뱅쳐럼 구불구불한 사행전을 곁에 두고 황벽산(黃壁山)으로 가는 중이다. 개울물 위에 꽃무더기처럼 피어난 저 안개도 해가 뜨면 자취를 감출 것이다. 안개가 아름다운 것은 밤공기와 아침공기의 치열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갈대꽃 같은 안개무더기를 보자, 내가 좋아하는 황벽선사의 계승이 하나 떠오른다.

번뇌를 벗어나는 일이 예사일이 아니니 화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할지이다. 추위가 한 번 뼈에 사무치지 않았다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를 얻을 수 있으랴. 塵勞迴脫事非常 緊把繩頭做一場 不是一番寒徹骨 爭得梅花撲鼻香

승두(繩頭)의 승은 '목수가 기준 삼아 사용하는 먹줄'이란 말이지만 선승은 화두를 들고 수행하므로 화두란 말로 의역해야 옳을 것 같다. 그러니 이 구절을 '한바탕 줄을 팽팽하게 당겨붙지이다'라고 직역하는 것은 좀 더 고만하지 못한 애매한 소리다. 나는 말석의 문학도로서 이와 같은 뛰어난 절창의 계승을 접하면서 황벽선사를 흠모해 왔고, 선사의 가풍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조당집>에 나오는 선사의 행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스님의 휘는 희운(希運)이고 복주(福州, 현 복건성) 복정현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유년 시절에 고향인 복정현 황벽산 반야당(현 반복사)으로 출가했기 때문이다. 그밖에 스님의 속성이나 출생 연대와 부모의 신상은 미상이다. 한미한 집안이었기 때문일까, 그래도 수긍할 수 없는 미스터리다.

스님은 키가 일곱 자인 장신이었고, 상호는 이마 한 가운데에 사마귀가 난 호랑이 상이었다고 한다. 또한 천성이 활달해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언행은 대승의 전품을 지녔다고 전한다.

이와 같은 언행은 출가 전부터 드러났다. 친구들과 천태산으로 가던 길에 한 스님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개울은 장맛비로 불어나 있었다. 스님은 친구들과 함께 개울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건널 수 있는지 궁리하며 멈추어 섰다. 그런데 길에서 만난 그 스님이 어서 개울을 건너가자고 재촉했다. 할 수 없이 스님은 자신이 있다면 먼저 건너가 보라고 했다. 그러자 그 스님이 옷을 걸어 올리고 무사히 건너가 저쪽 개울둑에 오른 뒤 어서 오라고 손을 흔들었다. 이에 스님이 먼저 건너간 스님의 행동에 실망하여 소리쳤다.

“이 도적놈아! 애초에 스님을 물랐던 것이 한이다. 진작 알았더라면 때려서 다리를 분질러 놓았을 것이다.”

그제야 그 스님이 스님의 큰 마음을 읽고는 탄복했다.

“대승의 바탕이오. 혼자서만 개울을 건너 나 같은 중하고는 다르오!”

훗날 스님이 출가한 뒤 만행하다가 백장 선사를 참방하게 된 계기는 어느 노파를 만나고 난 뒤였다. 장안의 저잣거리에서 탁발하며 머물 때였다. 어느 한 집에 가면 꼭 문이 닫혀 있었다. 어느 날 스님은

## 저잣거리 노파 만나 선문의심 털고, 백장선사 찾아가 깨달음 이루다

그 집의 노파와 마주치게 되었다. 노파가 스님을 보자마자 말했다.

“영성한 스님일세!” 스님은 노파의 탄복을 듣고 나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항의했다.

“밥을 주기는커녕 어찌하여 영성하다고 하십니까?” 노파가 대답했다.

“겨우 그 모양이니 어찌 영성하다고 하겠소.” 노파는 공부하지 않고 탁발이나 하러 다니는 스님을 꾸짖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은 노파의 말을 알아듣고 나서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노파가 스님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공양을 올렸다. 노파는 이미 스님의 얼굴과 행색을 보고는 보통 스님이 아닌 줄 알고는 공양을 마친 스님에게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낱말이 물었다.

이에 스님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 보여

주었고, 젊은 날 충국사(忠國師) 회사에서 공부했던 노파는 다시 미묘한 관문을 일러 주었다. 이윽고 스님은 노파의 말끝에 그윽한 선문에 대한 의심을 떨쳤다. 잠시 후 스님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노파를 스승으로 섬기겠다고 하자 노파가 거절했다.

“나는 여자로서 다섯 가지 장애가 있는 몸이니 강서에 계시는 백장 대사를 찾아 가시오. 선림의 선지식으로 여러 봉우리 중에 우뚝 솟아 있다고 하니 스님은 그분에게 가시오. 묻고 배우시오. 뒷날 인연의 스승이 될 것이니 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곧바로 황벽은 백장 선사를 찾아가서 공손하게 예를 갖춘 뒤 물었다.

“예부터 전해온 법을 화상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백장 선사가 침묵만 하고 있자, 황벽이 말했다. “뒷사람들이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벽의 이 말은 예부터 전해온 법을 자신이 공부하여 있겠다는 발심이기도 했다.

백장 선사가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한 사람의 공부인으로 보았었지!”

백장 선사가 방장실로 들어서며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황벽이 말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한마디 허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만으로도 만족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뒷날 나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후 황벽은 백장 선사를 시봉하며 여러 해를 보냈다. <조당집>에는 선사들의 행장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뼈와 골수만 전하고 있어 이 미련의 심리는 상상해 볼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보통사람들의 이해를 위해 조금씩 의역했지만 당시 선사들의 내면까지 읽는 이가 헤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백장 선사에게 임실을 허락받은 황벽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수험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서 터이다. 임실을 허락한 백장 선사에게 황벽이 감개무량하여 ‘저는 그 말씀만으로도 만족할 뿐입니다!’ 가 바로 그것이다.

황벽의 호랑이 상은 스승인 백장 선사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다. 어느 날 백장 선사가 황벽

에게 물었다.

“어디 갔다 오는가?”

“산 아래서 버섯을 따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산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산다는데 너도 보았느냐?”

이에 황벽이 호랑이 소리를 내자, 백장 선사가 허리춤에서 손도끼를 꺼내더니 짙은 자색을 취했다. 황벽은 쩍쨍해 백장 선사의 손을 잡더니 따귀를 후려쳤다(시뭇한 한 것을 뒷사람이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때렸다고 기록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백장 선사는 꺾일 옷으며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저녁이 되어 만참법문 때 백장 선사가 말했다.

“대중들이여, 산 아래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으니 잘 살피라. 노승도 오늘 아침 한 입 물렸느니라.”

여기서도 백장 선사의 마음을 헤아려볼 수 있는데 ‘한 입 물렸다’고 대중들에게 알리는 지금부터 황벽을 자신의 법을 이어나갈 후계자로 삼겠다는 의중이 아니었을까.

이후 황벽은 백장사를 떠나 사숙이 주석하고 있

는 안휘성 남전사로 가 남전 선사 회소에서 머문다. 사숙 중에는 서당도 있었지만 황벽은 남전 선사의 가풍이 더 자신에게 계합됐던 것 같다. 남전 선사의 제자 중에는 조주가 있고, 신라로 돌아와 사자산문을 개창한 도운이 있다. 어느 날 남전 선사가 나물을 다듬으러 가는 황벽을 보고 물었다.

“어디를 가는가?”

남전 선사가 묻는 요지는 ‘무엇을 견질하고 있는가’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황벽은 사숙의 말에 걸리지 않을 기회를 엿보다.

“나물을 다듬으러 갑니다.”

남전 선사는 이미 나물 다듬는 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다시 물었다.

“무엇으로 다듬는가?”

그제야 황벽이 남전 선사 눈앞에 칼을 번쩍 들었다.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들었다. 빠져나갈 안벽한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남전 선사는 황벽의 선기를 시험해 보았으므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필요가 없었다. “여러 사람이 나물을 다듬는군.” 하고는 방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남전 선사와 황벽의 문답 중에는 ‘짚신 값 돌려달라’는 환초혜전(還草鞋錢)이라는 공안도 있다. 남전 선사가 물었다.

“정(定)과 혜(慧)를 함께 배워서 부처님 성품을 밝게 본다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루 종일 한 물건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로의 견해인가?”

“부끄럽습니다.”

“장 담그는데 부은 물 값은 그만 두더라도 짚신 값은 주어야 할 게 아닌가?”

물은 값이 없는데 짚신은 값이 있는 물건이다. 깨달음을 위해 돌아다니느라 많은 짚신이 닳았을 테니 이제 그 짚신 값, 즉 깨달은 경지를 내보이라는 말이 아닐까. 황벽은 남전 선사에게 한 점 침묵으로 자신의 경지를 내보였다.

황벽은 남전사에서 다시 홍주의 관사(官寺)인 개원사로 떠난다. 그날 남전 선사는 산문 밖까지 나와 황벽을 전송해 주었다. 석별의 정을 나누는 데에도 법이 오갔다. 남전 선사가 황벽의 삿갓을 벗기면서 말했다.

“장로의 몸집은 큰데 삿갓은 작구나.”

“그래도 이 작은 삿갓 속에 온 우주가 몽땅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삿갓이 덩치 큰 황벽에게는 작았을 수도 있었지만 황벽은 그렇게 대답하고는 바로 남전사를 떠났다.

마침내 의풍시 황강현 황벽촌에 이르니 안개가 걷힌다. 촌부들이 햇볕에 곡식을 말리고자 이른 아침부터 명석을 펴고 있다. 지금까지 순례 중에 보았던 사하촌 중에서 가장 외진 곳 같다. 아직도 이곳의 늙은 촌부들은 조령밭을 타고 다니고 있다. 갑자기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선사는 왜 이런 오지 황벽산으로 들어와 회상을 이루었을까. 황벽사는 선사가 임적할 때까지 교화를 편 행화도량이었다.<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since 1999 행복한 禪 여행 아제 여행사

다음검색 "아제 여행사" ☎ 02) 730-4008

선사들의 서릿발 화두기가 지금도 강하게 흐르는 옛 선사들의 선적지!! 최고의 노하우 아제아제바라아제 아제여행사!!!!



달마에서 혜능대사까지 8일
•출발: 4월 7일 (1차), 5월 12일 (2차)
•동참금: 1,690,000원 / 1인

대혜종고/고봉원외선사 천축산 4일
•출발: 3월 29일 (1차), 5월 21일 (2차)
•특전: 890,000원 / 1인

중국 항오선종사찰 8일 (11분선사)
남약회암 / 마조선사 / 백장선사 / 대우선사 / 황벽선사 / 위산선사 / 양산선사석상선사 / 양기명회 / 석두회현 / 동산선사
•출발: 2011년 3월 14일 [8일] (1차), 5월 23일 (2차)
•동참금: 1,590,000원 ~ / 1인
※ 뜰앞의 잣나무 (정찬주 작가) 증정

인도.네팔 8대성지 11일
위대한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탄생에서 열반까지 근부화도와 함께 떠나요~
•출발: 2011년 3월 8일
•동참금: 2,390,000 (팁불포함)

\* 캄보디아 앙코르왓트 5일
- 앙코르와트, 바푸온사원의 전설
- 3월 11일 / 990,000

\* 실크로드&블고로드 7일
- 병령석굴 - 트루판 - 돈황석굴 - 우루무치
- 4월 12일 1,850,000 / 1인

\* 불탑의 나라 미얀마 / 방콕 8일
- 앙곤 - 바간 - 만달레이 - 방콕
- 4월 14일 1,990,000

\* 구화산 / 보타산 6일
- 지장보살 / 관세음보살화현처
- 4월 10일 1,090,000

2010 부탄을 제외한 여행사
의밀라아 은둔왕국 부탄/다질링 9일
지역지방 다질링 - 파로 - 수도 팀푸 - 여왕궁 푸니카 - 파드마삼바바 수행동굴 탁석
출발: 4/7, 5/12 (월, 목 출발가능)
3,090,000 / 1인
\* (비행 / 하노여행)
4월 6일 출발 - 1,690,000
5월 15일 출발 - 1,890,000
밀라레파 파드마삼바바 아티사 성인들의 이야기
great adventure!!
티벳으로 떠나는 순례
지구상 최고도를 달리는 정정교회
밀라라아 정교의지의 궁 포탈리궁